

광주 모 신탁조합원 자격박탈 논란

광주지역 모 신탁협동조합(신탁)이 조합원 상당수의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해당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A신탁에 따르면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8000여 명의 조합원 중 3500여 명이 자격이 상실됐다며 탈퇴시켰다.

이사회는 최근 3년 동안 적금과 대출 등 기한이 있는 거래가 없는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자격이 상실됐다든 입장이다.

자격 상실 대상 조합원은 신탁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정

조합측 3년간 거래 없으면 자격상실

조합원 “정관상 위배·절차상도 문제”

됐으며, 2013에도 조합원 1900명 가량이 같은 조건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A신탁은 밝혔다.

신탁 중앙회도 A신탁의 이번 조합원 자격 상실 결정이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기본 출자금과 예탁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신용사입에 대한 거

래 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결정은 ‘조합에 대출금이 있거나 예탁금 또는 적금이 있을 때에는 조합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정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월로 예정된 신탁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대거 상실시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A신탁은 조합원 제명 때는 예고하고 소명기회를 주지만 자격 상실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통지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조합원은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사실 확인 등 감사를 요청했다.

조인호 기자

부산 삼각산 산불 사흘 만에 완진

부산 기장군 삼각산(469m) 산불이 사흘 만에 완진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3일 오후 3시 13분께 삼각산 산불이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께 발생한 이 산불로 인해 임야 50ha가 소실됐고, 그 피해액은 3억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부산소방은 추산했다.

부산소방 등은 다음날인 2일 오후 1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았지만 험한 지형으로 인한 소방장비 투입이 힘들어져 진화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완진이 늦어졌다.

어머니 폭행 후 살해한 30대 구속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후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5시에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69)씨를 폭행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잔소리가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서 크레인 사고’ 현장관리 소장 등 소환

서울 강서구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시공사 현장관리 소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공사 현장관리 소장 진모(57)씨를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차장 김모(38)씨도 같은 시간 참고인 조사 받는다. 철거회사 전무 진모(51)씨는 현재 참고인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청으로부터 심의받은 공방대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향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량차로에 정차 중이던 50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크레인이 콘크리트 잔해를 포함한 부자재 위에 설치돼 지반이 연약해진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70짜리 크레인으로 건물 4층 높이에 무게 5t의 굴착기를 들어 올려놓으려다가 지반이 한쪽으로 기울어 크레인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2일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강력 3개팀 15명을 투입해 철거회사 등 관련사 3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철거회사·시공사, 서초구에 있는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공사 계약서, 철거작업 계획서, 감리 계약서 등 관련 문건 전반을 확보했다.

인터넷서 만난 30대 2명 숨진 채 발견

취업과 실적 등으로 고민해 오던 30대 2명이 지난해 마지막 날 인터넷서 만나 이틀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에 “오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A(31)씨의 위치는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 부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30)씨 소유의 SUV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A씨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트렁크에서는 타고 남은 반개탄의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이들이 각각 취업문제와 실적 등으로 고민해 왔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달 31일 인터넷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나주에 오리 출하 고흥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나주 소재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오리를 출하한 고흥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번 겨울들어 이듬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 AI 검사 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된 고흥군 육용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가의 사육 규모는 약 8300마리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 의사환축 확인 시 선제적 조치로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을 폐쇄했다.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오리를 출하한 해당 농가 외에 영암 덕진(8400마리)과 나주 남평(2만 마리) 등 3곳 3만6700마리 및 지육도 집량 폐기했다. 이 도축장에서 계류·도축된 오리 및 지육의 외부 반출은 없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고흥군 내 모든 가금 농가와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 및 출입 통제명령을 내리고, 고흥군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수는 총 9건으로 늘었다. 모두 오리 사육농가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오리만 68만 마리에 이른다.

아생조류 분변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총 9건이다.



끌어 올려지는 군용버스 3일 오후, 전남 강령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의 한 지방도에서 10m 계곡 아래로 추락한 21사단 신병교육대 군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크레인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담뱃불 부주의 삼남매 숨지게 한 20대 모친 현장검증

광주 북부경찰서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모친 A(23)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바깥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주장한 점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또 화재 전후 과정을 대조해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 20여명은 “주의를 기울

였다면, 삼남매의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이 나기 10분 전인 지난 달 31일 오전 2시16분께 작은방에서 진 남편 B(22)씨와 통화한 뒤 술기운에 잠든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를 인지하고 같은 날 오전 2시25분~2시30분 사이 B씨와 B씨의 친구·112에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2 신고 과정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달라”며 집 주소를 말한 뒤 수차례 흐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전 2시33분과 2시35분께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말한 뒤 거실로 나온 것

으로 알려졌다.

이어 곧바로 작은방에 있는 자녀들을 구조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향했으며, 구조 당시 “우리 애들”이라며 울부짖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은방 입구 앞쪽에서 냉장고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옮겨 이불에 담뱃불을 켜며,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중과실치사·중실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두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이용규 기자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경치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멜로루 신타 장성군